

따뜻한 송편에 행복이 모락 모락



떠낸 송편을 식히는 모습.



대구햇빛시니어클럽의 '햇빛초떡방'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 9월 11일 새벽 5시 30분. 대구 남구 봉곡동에 위치한 햇빛초떡방에 어르신들이 한둘씩 모여들었다. "오늘은 일거리가 적어서 좀 늦게 나온 거예요. 여섯 새벽 3시에 문을 열었거든."

5년째 방앗간을 지키고 있는 남이주씨(64)의 말이다. 이곳 햇빛초떡방은 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 산하 대구 햇빛시니어클럽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2년 1월 문을 연 곳이다.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떡 제조 기술을 전수받고 직접 떡방을 운영하고 있다.

"송편이랑 속설기, 떡케이크 2개."

아침 작업량을 확인한 배순이(59)씨가 익숙한 솜씨로 불린 찰쌀을 계량한다. 떡방의 일꾼 4명 중 오늘은 남이주씨와 배순이씨가 작업 당번이다. 남씨는 2001년 떡방 참여자 기술전수교육을 받은 후 5년째 떡방을 지키고 있는 '큰언니'고, 배씨는 이곳에서 1년째 일을 하고 있다. 들은 별다른 대화 없이도 손발이 척척 맞는 풀버들.

분쇄기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찰쌀가루를 쏟아낼 때쯤, 어르신 5명이 찾아왔다. 떡 제조 기술을 배우는 '견습생'이다. 어르신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일손을 도우며 떡 만드는 과정을 익히고 있다. 남씨는 이들이 좀 더 일에 익숙해지면 떡케이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팀으로 독립시키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루에 불이 오르고 떡케이크에 쓸 바랑떡과 속설기가 먼저 얹혀졌다. 뽀얀 김이 오르는 떡방 한켠에 잘 익은 호박이 수습여 개 놓여 있다. 햇빛시니어클럽 할아버지들이 재배한 것이다.

"우리 떡방은 시니어클럽 할아버지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를 비롯해 100% 국산 재료만 사용합니다. 색소나 방부제도 쓰지 않으니 보관 기간은 짧지만 그만큼 건강음식이죠."

지하철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떡을 며칠간 상온에 두어도 굳거나 쉬지 않는 건, 그만큼 많은 양의 찹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햇빛초떡방의 떡은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이틀을 넘지 않는다. 소매 대신 주문 제작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찰이

나 단체, 가정에서 주문을 하고 대구 남구청에서는 직원들의 생일이면 떡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한다.

"여기서 일하던 어르신 중에는 떡 잘 만든다고 다른 가게에 스카우트 돼 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떡방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만드니까 모양은 그리 예쁘지 않지만 손맛은 어느 가게보다도 좋다고 자랑합니다."

송편 반죽을 앞에 두고 어르신들이 둘러앉았다. 여러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모양이 하나같이 고르고 깔끔하다. 5개월째 일을 배우고 있는 채문자(67)씨는 "일하는 것은 뭐든지 다 즐겁고 기쁘다"고 한다.



햇빛초떡방의 큰언니 남이주씨(왼쪽에서 두 번째)와 배순이씨(맨 왼쪽)가 오전 작업을 끝낸 후 일을 배우고 있는 어르신들과 한 자리에 섰다. 남씨는 이들이 일손을 배워 떡케이크 전문 팀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
특별한 대화 없어도 손발이 '척척'
잘 만든다 소문에 스카우트 되기도
힘들고 고되도 일할 수 있어 '행복'

추석을 앞두고 송편 주문량이 부쩍 늘었다. 배순이씨가 송편을 시루에 얹고 있다.

"집에서 명절 때 마다 해먹던 떡이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떡도 만들어 보고 예쁜 케이크도 배우니 즐겁지요. 음식을 정성으로 만들고 드시는 분이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떡방에서 일하는 보람이지요."

송편 60여 개가 순식간에 빛어지고, 찰통 위에 올려졌다. 30여 분 정도 지나고 뽀얀 김을 뿜어내며 송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이주씨가 따뜻한 송편 하나를 가져와 입에 넣어준다. 모양은 투박하지만 식감이 쫄깃하고 달지 않아 입맛을 당긴다.

"요즘은 처음 떡방을 열었을 때에 비하면 주문량이 3분의 1 정도 밖에 안돼요. 새벽 1~2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떡을 만들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 달에 60만원 받으며 일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떡을 즐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 만들어진 떡을 박스에 나눠 담고 나면 이제 배달은 김주식(60)씨가 맡는다. 떡방 운영을 관리하고 배달을 맡고 있다. 김씨는 "주문량은 줄었지만, 단골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떡방의 가족 같은 분위기와,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보람을 갖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있어 즐겁게 일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벌겠다거나 요령을 피우려 하지 않고, 능력이 닿는 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떡을 만드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 그야말로 이곳이 '햇빛초'이죠."

오전 작업이 끝나고, 김주식씨가 배달을 떠나고 나자 떡방이 조금 조용해졌다. 이들에게 '희망'이 무언지 물었다. 남이주씨가 무심한 듯 행주질을 하며 대답했다.

"이 나이에 무슨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저 힘들을 때까지 일하고, 후배들이 떡방을 잘 이끌어 나가주는 것이 바람이지요.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 햇빛초떡방이 앞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 줄 추석 송편이 시루에서 익어가고, 어르신들의 꿈도 햇빛초떡방에서 그렇게 영글어가고 있었다.(063)476-8090

대구/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우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썩양초, 식물성 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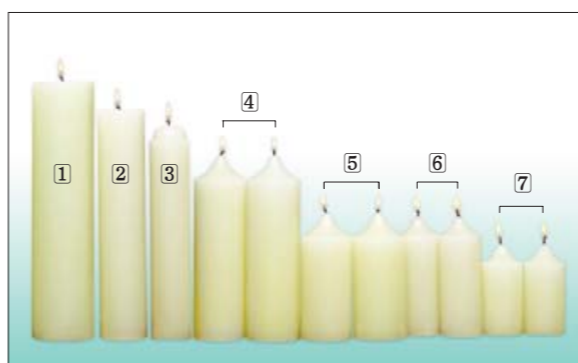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 받침대 2개) 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 선물세트
- 3) 밀납초완기둥 7.4φ × 30Cm
-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5)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9) 밀납초 4호 금강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 썩 양 초

- 1) 원기둥 7.4φCm × 29Cm
- 2) 돈타레 5.6φCm × 27Cm
- 3) 밀 대 4.7φCm × 25Cm
- 4) 1호 5.9φCm × 20Cm
- 5) 2호 5.9φCm × 14Cm
- 6) 3호 4.7φCm × 13Cm
- 7) 4호 4.7φCm × 10Cm



▶ 육각초 45cm

▶ 아광 호랑이(산신) 70φ × 35cm



▶ 아광 용초 70φ × 35cm

▶ 원기둥 마패 7.4φ × 30cm

▶ 등신불 마패 4.7φ × 19.5cm

※ 주소지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 양초.net